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십사만 사천

본문: 요한계시록 14:1-5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요한계시록 1:4, 9; 22:8절). 계시록의 내용은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고, 지상의 현재 상황을 상징과 암호를 통하여 시각화하여 우주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이유를 묵시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생명책에 기록된 ‘십사만 사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십사만 사천’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본문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사만 사천’은 구원받았고, 그 이마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있으며,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사만 사천’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십사만 사천 명’ 이들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사도 요한은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승리했음을 기뻐하는 새 노랫소리입니다. 3절에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3. ‘십사만 사천 명’ 이들은 음녀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 더럽히지 아니한 여자란 ‘음녀 즉 바벨론’을 말합니다(요한계시록 17장). 바벨론은 모든 사단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단의 유혹을 지킨 사람들이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4. ‘십사만 사천 명’ 이들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 ‘십사만 사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교회의 소속으로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십사만 사천 명’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야고보서 3:2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감사하는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언어생활을 하며, 교회의 소속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 여러분! ‘십사만 사천’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 여러분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녀 데오도르”

4세기 무렵, 흘아비로 살던 한 남자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열다섯 살 외동딸인 '데오도르'는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도에 전념했고, '데오도르'는 빨래, 요리, 동리에 가서 시장보는 일 등, 수도원의 제반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수도원과 시장의 중간쯤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 딸이 방탕하여 어느 군인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관집 딸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장을 보려고 자주 지나가는 수도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했고, 아버지는 수도원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데오도르'는 누명을 쓰고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수도사 중에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만일 발각되면 쫓겨날 뿐 아니라, 정말 타락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되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하고 모든 죄를 덮어씁니다. 결국 그녀는 쫓겨나 수도원 앞에서 거지처럼 '불쌍한 죄인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자 원장은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도원에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면서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짖은 데다, 하는 일이 많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도사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할 때야, 비로소 그가 여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모든 누명을 덮어쓴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그녀를 질시하던 마음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도원 전체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 데오도르'라고 불렀습니다.

THINK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한다 -C .L. 쿠틸 / 성녀 데오도르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3월 30일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4월 27일
마을특송	온유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김
대표기도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김덕실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본당청소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중식봉사					

주요광고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3월 28일(월) ~ 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주(3.28~4.3) / 주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 / 설교: 유천형 목사
 2주(4.4~4.10) / 주제: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 설교: 서민기 목사
 3주(4.11~4.17) / 주제: 가상칠언(架上七言) / 설교: 김윤석 담임목사
-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를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에 예배를 드린 후 목자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세이레를 완주하신 성도님들께는 2022년 세이레 승리의 메달을 드립니다.
- 안양시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준비기도회(2차) / 4월 8일(금) 오전 7시
 좋은이웃교회에서 조찬모임이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서리집사 / 다음 주: 새가족부)

내가 예수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팔을 활짝 펴 보이시며 죽으셨다.

-무명의 그리스도인.